

근거기반간호 - 임상간호연구결과

'캥거루케어'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 필요 미숙아 성장 촉진, 모아 애착 증진 등 효과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숙아 캥거루케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병원신생아간호사회가 병원간호사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실시한 '신생아중환자실 캥거루케어 전국 실태조사-간호행위, 장애요인, 간호사의 지식과 신념'에서 제시됐다. 책임연구원인 김희영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아동전문간호사다.

캥거루케어는 아기를 부모의 가슴에 안고 피부를 맞대고 있도록 도와주는 신생아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이다. 미숙아 사망률 감소, 신체적 성장 촉진, 모유 수유 및 모아 간 애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전국 67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결과 캥거루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은 67개 중 41개(61.2%)였으며, 41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151명 중 130명(86%)이 캥거루케어를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캥거루케어 교육에 대한 간호사들의 요구도는 85.5%(183명)로 높았다.

캥거루케어 간호행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캥거루케어를 시작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 캥거루케어 적용을 중단하는 기준, 필요한 환경을 준비해주는 지침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캥거루케어의 장애요인을 묻는 항목에서는 삼관지 튜브 또는 동맥관이나 정맥관이 빠질까봐 두려움이 있고, 캥거루케어가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생각했다. 너무 작은 아기가 이동하는 경우 안전이 염려가 돼 보호자에게 지지와 도움을 많이 줘야한다고 답했다.

캥거루케어에 대한 간호사의 신념은 120점 만점에 평균 83.9점이었다. 간호사들은 캥거루케어가 부모와 아기 사이의 애착과정을 증진시키고, 부모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며, 아기의 신체적 성장과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면회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연구팀은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캥거루케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경 및 의료인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고, 의료수가 마련 및 시뮬레이션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사 '이직' 다룬 연구 늘어

간호행정학회지 논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활용

간호사의 이직을 다룬 연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행정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2013~2015년)'에서 밝혀졌다. 논문은 간호행정학회지 2017년 1월호에 실렸다. 한국간호행정학회가 지원한 연구이며,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외 8인이 연구했다.

2013~2015년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71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존의 기술적 통계방법 분석에서 벗어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해 주요어의 중심성과 응집구조 등을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주요어 분석결과 복수선택된 주요어 679개 중에서 간호사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직(24건), 직무만족(24건), 소진(15건), 조직몰입

(14건), 간호학생(11건), 직무스트레스(9건), 병원(9건), 간호(7건), 리더십(7건), 감정노동(7건), 역량강화(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2010~2012년 간호행정학회지 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여전히 주요어로 나타났으며, 이직을 다루는 연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결과 주요어 중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이직과 임파워먼트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요어는 다른 주요어 간의 직접적인 연결이 많은 것을 뜻하며, 간호관리 연구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조직몰입, 간호전문직관이었

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요어들은 하나의 개념이 전체 텍스트에서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주요어 사이에 4개 군집이 형성됐다. 이 중 이직을 중심으로 하는 군집의 크기가 가장 컸으며, 주요어 대부분이 이직을 예방하는 요인들이다.

연구방법을 보면 양적연구가 141편, 질적연구가 20편, 문헌분석연구 8편, 통합연구 2편이었다. 양적연구 중 비실험연구가 130편, 실험연구는 모두 유사실험연구로 11편이었다. 비실험연구 중 서술연구 67편, 상관관계연구 39편, 도구개발연구 12편이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사(121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학생(17건), 건강향상인(7건), 환자(6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기관은 병원(128건)이 가장 많았으며, 간호교육기관(18건), 지역사회(4건), 간호 관련 기관(4건), 기타(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수정 기자 sjchoi@

환자안전법 시행 1주년 맞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오픈

온라인으로 누구나 손쉽게 환자안전사고 보고

자율보고된 데이터 분석해 학습 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강화 목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www.kops.or.kr)'를 오픈했다.

포털사이트가 오픈됨에 따라 그동안 서면으로 보고하던 환자안전사고를 인쇄나 우편발송 절차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환자안전 뉴스레터, 교육자료 등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포털사이트의 이름인 KOPS(콤포스)는 대한민국(Korea),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영문 풀네임 중 환자(Patient)와 안전(Safety)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것이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구축됐다.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를 의료기관 전체에 공유해 학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함으로써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환자 및 환자보호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누구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

고할 수 있다.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약 11개월 동안 총 204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

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환자안전 사고 접수 및 검증,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온라인 자율보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전산환경 및 보안체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보고, 조사·분석, 공유·전파 등 보고학습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2019년에는 환자안전 정보의 수립, 처리, 확산을 아우르는 통합정보 포털을 구현할 계획이다.

석승환 인증원장은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오픈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포털이 환자안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환자안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

전법'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과 오재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부산시간호사회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영은)는 중간관리자 역량강화사업으로 '간호와 의사소통-소통의 감을 잡다' 교육을 8월 9일 간호사회 회관 강



당에서 실시했다. 총 30개 기관에서 중간관리자 이상 109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가 개발한 순회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스트레스의 본질과 의사소통의 실제에 대해 이해하고, 스트레스 극복방법 및 효과

적인 의사소통기술을 배움으로써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직장에서의 자기관리, 간호현장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 극복하기, 행복소통의 실제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교육학회 교수법 워크숍 개최

한국간호교육학회(회장·정명실)는 '간호교육자를 위한 교수법 및 학습평가 전략' 주제로 하계 교수법 워크숍을 8월 17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 학습전략 및 간호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기조절학습(SRL)을 활용한 수업전략' '간호교육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방안 : 교과기반 평가모델(CEA)과 루브릭' '간호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의

이해와 적용'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정명실 회장은 "워크숍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체득하길 바란다"면서 "학회에서는 앞으로도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